

# 사형집행 등 '제도적 살인' 시각차 커

## 해외불교칼럼

스무 해 남짓 선불교를 수행해온 뉴욕의 바브라 오브라이언 보살님은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다. 10월 1일 그분이 웹 사이트에 올린 글이다.

“현재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은 두 후보의 진영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 다만 몇 개 주의 선거에서 작은 쟁점으로 떠오를 뿐이다.”

이어 불자로서 소견을 밝혔다. “사형이란 범죄자 및 범죄자로 판단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는 제도적 살인행위다. 사형제도는 불교의 비폭력과 자비의 교의에 명백히 어긋난다. <법경>의 말씀이다. ‘누구나 폭력에 떨며 죽음을 두려워하니, 나 스스로 남의 처지가 되어볼진대 남을 살상하지 못하며 남의 살상행위도 막으리라.’”

한편, 금년 6월과 7월에 걸쳐 태국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국제행사가 개최됐다. 불교계의 적극지원을 받은 ‘자유 시민연대’는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적 의식계몽캠페인과 일련의 세미나를 통해

완전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0월 15일 영국 BBC의 특별칼럼 ‘불교와 사형제도’를 발췌 소개한다. 불교철학에 대한 서구인의 이해가 일부 반영된 글이다.

불교는 세계 각처의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따라서 사형제도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지니기가 쉽다. 아무리 고결한 선근(善根)도 다른 생명체의 심신을 해친다면 결코 선행이 되지 못한다. 붓다는 극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육체적 처벌은 말라 가르쳤다. ‘누군가 내게 해코지를 할지언정 나는 가없는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아야한다. 그의 그릇됨이 더할수록 나의 고운 뜻은 더 커짐을 잊지 말라.’

불교는 생과 환생을 함께 중요시해 이렇게 가르친다. ‘과도한 처벌은 범죄자와 가혹한 처벌은 물론 처벌자의 심성에 동시 상해를 가한다. 또 사형집행의 경우, 범죄자와 처벌자 모두 내세에서 영적 위해(危害)를 피할 길이 없다.’

범죄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벌로는 비행(非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보편적 인간애마저 파괴한다. 그보다는

교도(矯導) 범죄자에 대한 최적의 처리 방식이며, 교도행정은 범죄자를 바로잡아 사회로 복귀시기를 최종목표로 시행돼야 한다. 죄질이 극심해 범죄자에게 최소한의 관용마저 베풀 수 없는 경우, 사형보다 더 중신 격리시키거나 오지로 유배를 보낼 수도 있다. 사형제도는 태국처럼 국민의 절대다수가 불자인 국가에도 여전히 존속한다. 대가대비를 지향하는 불교가 주류를 이룬 국가들조차 제도적 살인행위를 옹인하는 까닭은 뭘까? 그 가장 큰 이유는 해당국가의 위정자들이 범죄억제와 징벌에 있어 사형이 가장 효율적인 장치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국가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극형은 전통적 타성 또는 종교 문화적 관습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장기화되는 국가의 경우, 엄격한 범죄질서가 불가의 가르침보다 우선할 것이다. 태국과 같은 승려 중심의 사원불교, 그리고 미국처럼 세속불자 중심의 민중불교는 제도적 살인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인다.

여기까지가 BBC의 일부 인용이다. 이 제 불교 사회화의 권위자인 선승 프란틴

터 박사의 현실적인 견해를 들어보자.

“범죄다발지역에서 순찰임무를 수행하는 불자 경찰관 및 일족경찰의 최전선에 배치된 불자 군인, 그리고 고요한 선방에 앉아 참선하는 승려 모두가 불제자다. 하지만 그들은 다르마를 추구하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체험을 한다. 예컨대, 불자인 경찰관이나 군인은 직책 상 불가피한 인명살상을 포함한 임무를 지닌다. 이마저 제도적 살인이라 일반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천진한 이둔함이다.”

문득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군부독재자 항운동 당시 승려들을 무차별 살상한 일부 군인들에 관한 외신보도가 떠오른다. 이른바 치안유지의 명분으로 제도적 살인행위에 투입됐던 그들 중 일부는 자살하거나 탈영 또는 망명했다. 그 군인들은 잘못될 때에 잘못될 곳에서 잘못을 저지러 수밖에 없었다. 부모처자를 부양할 책임과 같가리 짚긴 불신 사이에서 그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참으로 안쓰러운 카르마다.

번역: 성휴 스님  
출처: BBC, ABOUT, BCT

##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브루스 조엘 루빈 ⑧

# 구루 루디에게 영적 위안 받아

60년대 초반까지도 많은 서구인들은 불교를 힌두교 등 여러 동양철학과 혼동하곤 했다. 이들이 생겨난 지역이 대체로 같고 정신문화의 유산 역시 공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동양종교철학의 분파들은 더불어 사는 공존을 지향한다. 따라서 뿌리가 다른 외래종교에 관대하며, 유대-기독교-이슬람의 분파들처럼 서로 적대감의 칼날을 세우지도 않는다. 그런 까닭에 기독교적 환경에서 극단적 양분사고와 상호배척을 배워버린 서구인들은 동양의 종교철학을 선뜻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허로는 사랑을 들먹이나 실제로는 ‘가르고 베고 찢기’를 가르치는 신성모독적 위선과 독선에 너무 오래 길들여진 탓이다.

“완전함을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완전함이란 바로 당신의 자아 속에 있으니까요.” 그 말에 넘어가 열팔결에 5달리를 내고 불상을 사버린 브루스는 이렇게 회고한다. “허, 진짜 기막힌 상술(術)이었죠.” 루디는 훗날 브루스의 작품 ‘사랑과 영혼’에 등장하는 어수룩한 심령술사 오다메를 떠오르게 한다. 두 인물 모두 선뜻 믿자니 좀 미심쩍고, 아예 안 믿자니 뭘가 그럴싸한 게 있을 듯 꽤 이상아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브루스와 루디의 인연은 거의 두해 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허로는 사랑을 들먹이나 실제로는 ‘가르고 베고 찢기’를 가르치는 신성모독적 위선과 독선에 너무 오래 길들여진 탓이다. 그러다 네팔에서 접자현으로 강제 추방

## 힌두교·요가 통해 종교로서 불교에 우회접근

### 부인 불량쉬, 스물 다섯 해 동안 참선수행 도반

아무튼 그들 중 일부는 힌두교나 요가 등을 경유해 불교에 우회접근을 하기도 한다. 극작가 브루스 조엘 루빈 도반의 경우도 그 전형적인 사례다. 그에게 불연(佛緣)의 첫 실마리를 이어준 이는 요가의 대가 스와미 루드라난다다. ‘루디’라는 별칭으로 더 알려진 루드라난다라는 인물부터 잠시 살펴보자.

루디는 본명이 알버트 루돌프인 유태계 미국인으로 1930년대 경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시절에 뉴욕의 빈민가에서 자란다. 그는 열 살 즈음부터 온갖 막일을 하며 참담한 유년기를 보낸다. 그런데 특출한 신통력과 교감능력을 지닌 그는 줄곧 영적 계시와 안내를 받는다. 고학으로 대학을 마친 그는 미국과 인도에서 티베트 라마와 힌두교 성자의 지도를 받아 마침내 ‘자아를 지닌 분’이란 의미의 스와미 루드라난다라는 칭호로 거듭 태어난다.

한편, 그는 경영수완이 탁월한 사업가였다. 뉴욕의 7번가에서 동양미술품 구매가게를 시작해 마침내 루디스 점방(Rudi's Store)이란 유명 동양미술품 딜러로 성공한다.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다. 그의 가게에 들린 브루스 조엘 루빈은 달랑 5달러를 쥐고 유리 상자에 담긴 아주 작은 불상을 기웃댄다. 그의 관심과 주머니 사정을 알아차린 루디는 그에게 그 불상을 꺼내준다. 브루스는 불상은 좋으나 보존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며 거절한다. 그러자 루디가

왜 뉴욕으로 돌아온다. 그는 현지에서 함께 굶주리던 승려들에게 먹거리라도 좀 보내주고 싶었다. 그래서 네팔에서 가져온 카페트 몇 장을 들고 루디의 가게에 들른다. 그의 구도행각을 들은 루디가 묻는다. “그래서 스승은 만나셨나요?” 브루스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자 루디가 말한다. “그럼 당신이 알고픈 걸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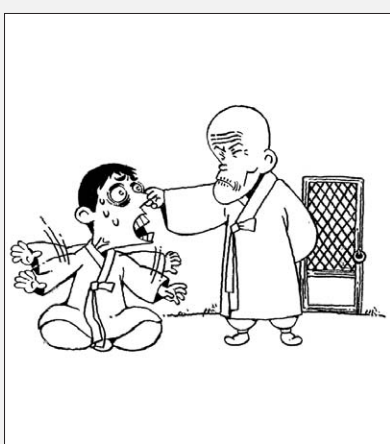
다시 브루스의 회고다. “그 순간 저는 루디의 진심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절실히 느껴요. 제 일생일대의 전환점이었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제가 루디를 스승으로 받아들인 순간 이미 또 다른 인연의 실마리가 이어지고 있었죠.” 바로 그날 저녁, 브루스의 친구들은 긴 여로에 지친 그에게 참한 불량쉬란 여자 친구를 소개해준다. 루디로부터 힌두철학과 티베트 불교 등을 배우던 브루스는 두해 뒤 그녀와 결혼한다. 그 후 이들 부부는 스물다섯 해가 넘도록 함께 참선하며 아름다운 불심을 엮어간다. 미국 사회는 1950년대부터 기독교에 대한 신앙적 불신감과 영적 허탈감 속을 헤맨다. 1930년대의 경제공황에 이어 영혼공황(Spiritual Depression)의 악몽에 시달린 것이다. 미국에서 불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도 그즈음이다. 브루스에게 영적 위안을 베풀 구루 중 하나인 루디는 1973년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한다. -계속-

성휴 스님

# “that's Emptiness”

##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그것이 즉 공(是即空)이로고”



The master asked one of his disciples, “Can you get hold of Emptiness?” “I’ll try,” said the monk, and he cupped his palm in the air. “That’s not very good,” said the master. “You haven’t got anything in there!” “Well, master,” said the monk, “please show me a better way.” Thereupon the master seized the monk’s nose and gave it a great yank. “Ouch!” yelled the monk. “You hurt me!” “That’s the way to get hold of Emptiness!” said the master. An old bosalnym overheard it and murmured with a deep sigh, “Having served them food over the past 10years, that’s Emptiness.”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다. “공(空)을 붙잡을 수 있겠느냐?” “네, 해보겠습니다.” 제자는 허공에 손바닥을 찌잔처럼 우뚝하게 오므렸다. 선사가 말했다.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붙잡질 못했잖느냐?” 제자가 물었다. “하면 선사님께서 더 나은 방도를 알려주소서.” 그러자마자 선사는 그의 코를 확 움켜쥐더니 확 비틀어버렸다. 제자가 소리를 내질렀다. “아아!” 선사가 말했다. “공(空)은 바로 그리 붙잡는 게야!” 그걸 건너들은 노보살님이 중얼댔다. “저분들한테 10년이 넘도록 공양을 지어 올렸건만,” 그러곤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즉 공(是即空)이로고.”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 ‘그리움의 책’ 음악으로 클래식 코언 공동창작

미국의 극소주의 작곡가인 71세의 필립 글래스와 캐나다 출신의 작곡가수 겸 록 시인인 74세의 레너드 코언이 공동창작을 발표했다. 이 두 거장은 코언의 시집 <그리움의 책>을 음악에 접목한 작품으로 금년 10월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 국제예술제의 전야제를 밝혔다.

필립 글래스는 오페라 ‘해변의 아인슈타인’ 등 지난 40년간 다양한 한 활동을 펼쳐온 불교도반이다.

1967년 앨범 ‘레너드 코언의 노래’를 발표한 이래 한 시대를 풍미한 레너드 코언은 1996년 수제한 불교승려로 이변 두 도반의 합작 자체가 국제 흥분의 큰 의의를 지닌다.

출처: The Age

#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 산사음악회 및 서화문화축전

##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11월 8일 오전 10시



불자여러분! 11월 8일 불자님들께서 정성으로 필사한 법화경사경을 탑속에 모시는 사경봉안대법회가 천안의 구룡사에서 봉행됩니다. 아울러 8인의 불자가수들이 2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한 법화예찬의 노래발표회와 한국을 대표하는 서화문인들이 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기훈과 뜻 깊은 문장을 서예작품으로 써주는 문화축제도 함께 열리는 바 많은 분들의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희주 석도림 합장



장소 :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288-2 ☎041-552-9666~8) 일시 : 불기 2552년 11월 8일 문의 : 02-928-1331